

안동권씨 복야공파 입암문중 동봉재 재건립



동봉재 편액

동봉(東峯) 권극립(權克立, 20세, 복야공파, 1558-1611) 선생 재실이 개축되었다. 동봉 선생은 임진왜란을 피해 가솔들을 이끌고 입암으로 이거하여 세거지로 삼은 입향조이다. 동봉 선생의 7대조는 고려말 우정승 예천부원군(醴泉府院君) 문단공(文坦公, 일재一齋 권한공권漢功)이오, 조선초 태종조에 영의정을 지낸 문절공(文節公 權仲和)은 6대조이다. 문절공 이후 3대까지 예천으로 이거하여 할아버지와 부친에 이르는 3대에 걸쳐 영천에 살다가 동봉 선생이 35세 되던 해에 난을 피해 입암에 터를 잡은 후 430년 동안 안동권씨 복야공파 입암문중으로 이어져 내려왔다. 후손들은 입향조 동봉 선생을 기리기 위해 1925년 재사(齋舍)를 건립하여 100여년 동안 선조들의 묘소를 수호하고 제관들의 안식처자 동봉공 후손들의 자궁심으로 지켜오며 주원보본(追遠報本)의 근간으로 삼아 영모(永慕)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20년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연이은 두 번의 태풍영향으로 100여년간 존속해온 영천 배골재실은 붕괴되고 말았다. 그때가 2020년 9월 7일이었다.

이에 종종 권영진 회장은 피해 사실을 조사한 후 재실의 필요성은 적으나 재실 자체를 철거하여 없애는 것은 자손된 도리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문중의 여론 수렴을 위해 9월 21일 문중 카페에 공지했다.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문중 재정이 부족하여 특별한 대안을 찾을 수 없었다.

12월에는 권영훈 부회장은 임시종회를 개최하여 재실을 복원할 것인지, 철거할 것인지, 아니면 타용 도로 활용할 것인지를 두고 총원 14명이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했다. 찬반의견은 분분했다. 재실의 현실적인 활용도도 낮고 향후 관리 등의 문제점을 들어 반대의견이 다소 우세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 결정은 집행부에 위임했다. 이때 미국에 거주하는 종손 권영진 회장이 재건축하자는 뜻을 강력하게 피력하였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2021년 1월 배골재 실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권영훈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종손 권영진 회장을 비롯하여 권중육, 권중국, 권태신 등 문중 어르신들을 고문으로 주대했으며, 위원에는 권태식, 권영만, 권영건, 권태완, 권병필, 권태옥, 권중현, 권내현 등 8명, 간사에는 권중도, 총무는 권태우를 선임하여 위원회 구성에 미쳤다.

건립추진위원회는 재실건립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종원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권영훈 위원장은 1억 5백만원을 흔쾌히 현성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입암 종회 총원 133명이 십시일반의 정성으로 모금에 동참하였다.

그러나 총사업지 2억5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신축금액과 철거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에 종손 권영진 회장은 거금 1억 9천만 원을 쾌척하여 종손으로서의 책임감과 조상을 위한 간절한 마음을 전달했다. 이로써 총 3억 6천 8백여만원의 기금이 마련되었다.

건립위원회는 입암종회 종원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2022년 9월 17일 2년여 만에 준공하며 동봉재(東峯齋)라 명명하였다. 동봉재는 3칸 겹집 팔작지붕으로 짓고 부속건물로 창고동과 건물을 맺어지붕



동봉재 전경



동봉 권극립 선생 묘소



동봉공유하비

으로 지었으며 대들보와 서까래는 육송을 사용하였다. 중요 무형문화재 박동근 대목장과 무형문화재 경주와장 정문길 선생이 지었다. 준공식은 코로나 19로 행사를 치루지 못하는 우여곡절 끝에 9월 17일에서야 겨우 거행할 수 있었다.

권영진 회장은 인사말에서 “동봉재가 전통한옥 방식의 수준 있는 재실로 거듭 태어났으니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며 문중화목의 근거지가 되도록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봉할아버지 자손 모두는 애정을 가지고 동봉재를 많이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동봉선생은 비록 산중에 숨어 있으면서도 국난을 근심하여 의병의 진중에 왕래하면서 토적(土賊)을 물리치는데 많은 공훈을 세웠다. 공이 창의토적(倡義土賊) 한 사적(事蹟)을 본기에서는 유실하였으나 조정에서 알고 선조 38년 선무원종공신록(宣武原從功臣錄卷)에 제삼등(第三等)의 병장으로 기록되었고, 인조 3년에는 가선대부(嘉善大夫) 공조참판겸(工曹參判兼)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부총관(副總管)이 증직되었다.

동봉공이 세상을 등지자 여현 장현광은 제문에서 그 용모는 박줄(樸拙)하였으나 품은 바는 충신(忠信)의 덕(德)이었고 그 언어는 단눌(短訛)하였으나 지킨 바는 정고(貞固)한 지조(志操)였으니 옥들 속에 숨어있는 구슬이오 훌듯 속에 감춰졌던 비단옷이라 하였으며, 서나재(徐樂齋) 사원(思遠) 이벽오(李碧梧), 시발(時發) 박대암(朴大庵), 성(惺) 조지산(曹芝山), 호의(好益) 이옥산(李玉山), 우(瑀) 곽성재(郭省齋) 근(勤) 등 제현이 모두 숙덕(宿德) 중망(重望)으로써 도우심계(道友心契)로 허여(許與) 하였으니 선생(先生)의 학문(學問)과 덕행(德行)의 뛰어남을 가히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여현(旅軒) 장현광(張顯光, 1554-1637)은 동봉의 권유로 우현(愚軒) 정사상(鄭四象)과 수암(守庵) 정사진(鄭四震), 윤암(綸庵) 손우남(孫宇男) 등과 함께 1597년 입암으로

가족을 이끌고 와 동봉과 함께 도의(道義)를 강론하며 함께 살기로 약속했으나 왜란이 끝나자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고 동봉 선생만 홀로 남았다. 여현은 동봉만을 남겨두고 떠나서 미안해서인지 아니면 입암의 풍경이 그리워서인지 해마다 한 번씩 입암을 내방했다고 한다.

효종 8년 1657년에 그 지역 사람들은 구지에 입암서원(立巖書院: 경북기념물 제70호)을 건립하여 여현 장현광을 주벽으로 하고 동봉 선생과 정우현 순윤암, 정수암 선생을 배향하여 추모하고 있다.

1998년 풍산 유용우 선생은 동봉(東峯) 권선생(權先生) 유하비명(遺墟碑銘)에서 다음과 같이 명(銘)했다.

준걸(俊傑)한 천품(天稟)이오 울연(蔚然)한 문행(文行)으로

소대(昭代)의 유현(儒賢)이며 백세(百世)의 금식(衿式)이라

터를 잡아 서지(棲遲)하며 장수(藏修)했는 이곳 승구(勝區)

산가수려(山佳秀麗) 요조(窈窕)하니 무릉(武陵)의 도원(桃源)인 듯

천주(天柱)인양 높은 입암(立巖) 선생(先生)의 고절(高節)이여

경면(鏡面)처럼 맑은 학담(鶴潭) 선생(先生)의 청조(淸操)일세

송림(松林)에 쌓인 사우(祠宇) 향연(香燭)이 예로우며 연하(煙霞)에 묻힌 대사(臺榭) 방죽(芳躅)이 새롭도다

벗들에 덕(德)을 새겨 옛터에 세웠으니

천추(千秋) 토록 전(傳)해가며 지나는 이 우러르리

참고문헌 : 동봉재재건립설시, 안동권씨 복야공파 입암종회

권행완 편집국장

권의철 화백 초대전 개최



권의철(복야공파, 36세) 화백이 2월 21일부터 26일까지 서울시 인사동 인사아트프라자 갤러리에서 초대전을 개최했다. 권의철 화백은 상주가 고향으로 고향에서 중학교까지 다니고 고등학교부터는 서울에서 유학생활을 했다. 어떻게 이런 장르의 작품을 구상하게 되었느냐고 묻자, 권의철 화백은 “중학교 시절 학교 갔다 오는 길에 오래된 비석이 무슨 글자인지 모르게 오랜 세월이 흘렀다는 것은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확실히 보이는 장면, 보이지 않는 장면, 시간이 흐르면 그 결과가 나온다. 이런 작업을 한지 벌써 45년이나 되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다. 죽을 때까지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화백은 흥미에 미대에서 동양화를 전공했다. 그런데 여백이 있는 수묵화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서양화풍의 그림을 그린다. 그것도 단색이다. 단색화의 맥을 잇는 작가로서 단색의 평면에 암각화와



같은 문자를 새겨 넣는 작업-히스토리(history)로 잘 알려져 있다. 수없이 시도한 봇질로 우돌투돌한 돌기는 비석의 비문을 형상화한 듯하다. 겹침과 중첩이 반복되는 바탕에 누군가의 염원을 기원하듯 써 내려간 오를도톨한 글씨는 시간이 흘렀고 간 세월의 자취이기도 하다. 그 돌출하는 흔적들은 미학 이전에 비석에 새겨진 우리의 얼을 떠오르게 하고 인생과 역사를 사색하게 한다.

권의철 화백은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 서울미술 대상전 한국화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한국미술협회 상임고문, 인천국제 여성비엔날레 고문, 한국미술아트피아 고문, 국제작가협회 부이사장을 맡고 있다.

권행완 편집국장

정유재란 때 나라를 구한 명신(名臣) 충정공 권협 선생

안동권씨 충정공 종회

1. 임진왜란(壬辰倭亂) 이전의 삶

충정공(忠貞公) 석당(石塘) 권협(權暉, 1553-1618, 주밀공파, 22세)은 효성이 지극했던 남강(南岡) 권상(權常, 1508~1589) 공의 5남 3녀 중 다섯째 아들로 태어나, 형제들과 함께 종실인 순천군 이관(李琯)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1577년(선조 10, 정축)에 문과에 급제하고 한림원(翰林院) 겸열(檢閱), 주서보(注書補)와 통진현감(通津縣監)을 역임하였다. 1588년(선조 21, 무자)에 수찬(修撰) 재직 시에 평양 근방으로부터 역질(疫)이 발생하여 경기도와 황해도 뿐만 아니라 여러 도에 크게 번져나가자 백성들의 불안과 공포심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선조 임금은 각도에 치제관(致祭官)을 임명하는 가운데 함경도에 권협을 파견하여 치제를 하도록 명했다.

선조 임금은 권협에게, “백성들이 보는 데서 치제를 하여 인심을 진정시키고 위로하도록” 당부하였는데 권협은 다음날인 3월 5일에 행장을 갖추고 일행과 함께 떠나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다.

그 후 권협은 호조 예조 병조 형조의 낭관과 삼사와 성균관의 여러 벼슬을 역임하며 동벽(東壁: 벼슬의 차례에 따라 좌석의 동쪽에 앉던 벼슬)”에 이르렀으며 항시 지제교(知製教: 왕에게 교서 따위의 글을 바치는 일을 맡아보던 벼슬)를 겸직하였다. 1589년(선조 22, 기축) 7월 25일 부친인 남강공의 상(喪)을 당했을 때는 경연직(經筵職)에 있었고, 1591년(선조 24, 신묘)에는 정4품인 사헌부 장령이 되었다.

2. 임진왜란 당시의 활동

권협이 사헌부에 재직을 하던 1592년(선조 25, 임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파죽지세(破竹之勢)로 밀리고만 있던 아군은 애군을 막으려고 도순변사(都巡邊使) 신립(申璫)과 순변사(巡邊使) 이일(李錫) 등을 내려보낸 뒤에 승첩(勝捷)의 보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일이 상주(尚州)에서 패한데 이어 신립마저 충주(忠州)에서 패사(敗死)하자 선조 임금은 재상(宰相)들을 불러 피난을 의논하게 될 어전회의를 열었는데, 권협은 이 소식을 듣고 대사헌 김찬(大司憲金贊)과 그곳으로 달려갔다.

영의정 이산해(李山海)는 임금이 평양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하고, 도승지 이항복(李恒福)은 중국으로 갔다가 회복을 도모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였다.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으로 있던 권협은 왕을 뵙기를 청하며, 무릎으로 어전으로 달려나가 서둘러 고개를 숙여할 것을 강경하게 아뢰었다. 선조 임금은 그의 의리를 탄상(讚賞)하여 차고 있던 폐검(佩劍)을 하사(下賜)하였다. 그러나 결국 4월 30일, 조정의 의견은 서울을 떠나기로 결정하였고 권협도 대거를 따라 서행하여 5월 1일 해질 무렵에 개성(開城)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5월 2일 왜장 고니시의 군대는 별다른 저항 없이 서울을 점령하였고 가토기요마사(加藤吉好)는 함경도로 향하였다. 서울에 입성한 고니시



충정공 권협 영정

가 다시 평안도를 향하였다는 소식을 접한 어가는 황급히 개성을 떠나 평양에 도착하였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이덕형(李德衡)이 명나라에 구원

병을 청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여 중국어 역관(譯官)인 흥순언(洪純彦)을 보내기로 하였다. 흥순언이 역관으로 명나라에 드나들 때 북경에서 19세 소녀를 3천냥을 주고 구원하여준 일이 있었는데 그 소녀가 후에 병부상서(兵部尚書)인 석성의 애첩(夷씨)이 되었다. 명나라의 “태조실록”과 “대명회전(大明會典)” 등에 조선 태조가 고려의 권신(權臣) 이인임(李仁任)의 아들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정에서 여러 차례 사신을 보내서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다가 마침내 흥순언을 보내 석성의 애첩 유씨의 도움으로 해결한 일이 있었다. 흥순언은 이 공로로 2등 공신에 당성군(唐城君)으로 봉해졌기 때문에 선조는 그에게 구원병을 청하도록 명을 내렸던 것이다.

선조 임금이 신하들의 상소에 따라 파천을 주장했던 중신들을 파직시키게 되자, 평양 행재소의 경비를 맡길 사람이 어렵게 되었다.

이를 걱정하던 권협은 윤경(六卿) 중에서 장수의 자리에 있는 자에게 대장의 책임을 맡겨 육체를 보존할 것을 건의하여 윤두수(尹斗壽)를 대장으로 삼게 되었다.

윤두수는 선조의 명을 받고 행재소에 나와 그날 밤 걱정이 되어 밤잠을 설쳤다. 그런데 남쪽에선 서울을 점령한 적군이 계속 북상하고 있다는 전갈이 있다. 선조는 신료들에게 질책이 비명에 가까운 노성을으로 변해 갔다.

권협은 행재소에 도착한 뒤 새로이 마음을 가다듬고 있는데 서울을 떠날 때 생사조차 몰랐던 종묘서령(宗廟署令)이던 셋째 형 권희(權暉)가 그의 아들 권의중(權益中) 권의중(權義中)과 조카(姪)인 권윤중(權允中) 권시중(權是中) 등과 함께 종묘(宗廟)의 신주(神主)들을 받들고 당도해서 감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

(다음호에 계속)



충정공 권협 신도비

2024년 안동권씨 능우회 2월 월례회 개최



안동권씨 능우회(陵優會, 회장 권오직) 주최 “2024년 2월 월례회”가 2월 13일 오후 6시 안동시 운안동 ‘제비원 축산가든’에서 개최하였다. 제14대 권오직 능우회 신임 회장이 취임한